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유로지역 인플레이션, 1999년 이후 최저 기록

- 유로지역의 2008년 12월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999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유로통계청에 따르면 16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08년 11월의 2.1%에서 12월 1.6%로 급락하였고, 이는 1999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, 2006년 10월과 동일한 수준임.
 -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원유가 인상에 따라 4%로 치솟아 정책당국의 골칫거리였으나, 원유가의 하락과 동시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최저를 기록하게 됨.
 - 그러나 Barclays Capital에 따르면 2008년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3.3%로서 유럽중앙은행(ECB)이 목표로 하는 2%를 상회하는 수준임.
 - 2009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, 2009년 평균은 1.1%로 예상함.
- 한편, 이러한 추세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ECB의 제로금리에 근접한 기준금리 결정에 타당성을 주는 것으로 보임.
 - 2009년 1월 중 인플레이션이 더욱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, ECB는 기준금리 추가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ECB는 2008년 10월 이후 175bp의 추가 금리를 단행하여 2.5%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추가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맞게 됨.
- 유로화는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더불어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급락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.
 - 유로화는 ECB가 2008년 12월 미국의 제로금리 단행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여준 결과 급등세를 기록하였으나, 이후 금리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락하게 됨.
 - 유로화는 2009년 1월 6일 달러에 대해 1.44에서 1.33달러로 1.7% 급락하였고, 파운드에 대해서도 0.9156파운드로 1.2% 하락함.

(Financial Times 1/6)